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오늘은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 11월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3시 10분).
- 12월 성탄 감사 예배와 축하 전야제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염두에 두면서 개인의 일정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 - 12월 25일(금) 오전 11시
성탄 축하 전야제 - 12월 24일(목)
1부 오후 5시 30분: 성탄 축하 찬양
오후 6시: 저녁식사
2부 오후 7시: 축하 잔치
- 다음 주일은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다양하게 섬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선교회 총회가 12월 13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연령 변경은 없습니다).
- 구주 성탄을 앞두고 교회 본당을 비롯한 주변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일시: 12월 12일(토) 오전 10시
-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청소년부와 연합) 홍보를 위한 Sausage Sizzle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아동부실 잔디마당에서 있습니다.
- 금요 저녁 기도회가 4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새 가족 환영회를 섬겨준 2 여선교회와 밀알 장애우를 섬겨준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오uckland 한인교회 협의회 정기 모임 및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섬겨 주실 성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0년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2월 교회지역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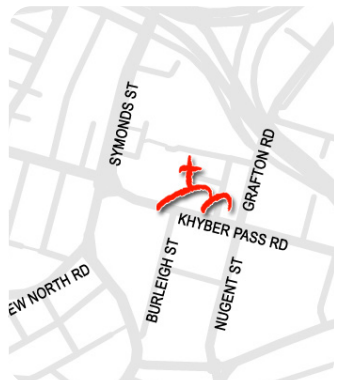
12월 6일 (주일)
대림절 2
12월 7일 (월)
오한협 모임
12월 24일 (목)
성탄 전야제
12월 25일 (금)
성탄 감사 예배
12월 27일 (주일)
송년주일
12월 31일 (목)
송구영신 예배

12월 기도 순서

12월 6일 (주일)
김병진 목사
12월 9일 (수)
김선화 권사
12월 13일 (주일)
김철재 집사
12월 16일 (수)
김영옥 권사

12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최희숙, 박병민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48호

2020.11.29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배 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 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금요기도 금 7:00 pm
유아부 주일 1:00 pm
아동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철
부 목사 이성훈

청년예배

금주기도
홍진솔 자매
다음주일
김다운 자매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시편 95:6-8 -----	인도자
✧찬송	----- 10장 -----	다함께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송	----- 254장 -----	다함께
대표기도	-----	손조훈 집사
성경봉독	----- 창세기 17:1-8 -----	인도자
찬양대찬양	-----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나무삼자가찬양대
설교	-----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다 -----	이태한 목사
헌금송	----- 십자가 그 사랑, 은혜 아니면 -----	최은수 집사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응답송	----- 310장 (1,4절) -----	다같이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도	-----	김민경 집사
성경봉독	----- 디모데전서 1:1-7 -----	
설교	-----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	이태한 목사
찬송	-----	204장
주기도	-----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일본 동경 사이타마 감사 교회 강태영 선교사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지난 시간은 코로나 사태의 위기 속에서 미리 계획되었던 모든 일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동역자님들께서도 보이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불안과 싸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며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신 주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예배와 기도모임 사역: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집회와 모임에 대해 조심해 줄 것을 정부에서 지금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기를 주저하는 성도들도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예배 후의 식사와 대면 교제는 현재는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배는 대면 예배와 유튜브를 통한 인터넷 예배를 병행하여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는 줌(ZOOM)을 이용하여 소그룹별 그룹모임을 통해서 주일 설교에서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 등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전도 및 개인 성경공부: 저희들의 주 전도의 대상이었던 캠퍼스가 모든 수업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서 캠퍼스에서의 전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 주변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것도 사람들이 모든 접촉을 꺼려 하는 분위기여서 지금은 노방 전도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혼들이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영혼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본인 이시카와 자매와 중국인 공 형제가 개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전에 전도된 나카오 형제가 그동안 공부와 가라데부 활동 등을 이유로 좀처럼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부 활동이 거의 중지 상태가 되었고 인터넷 수업으로 시간이 많이 생겨서 개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세례 공부를 결심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만나서 세례 준비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

- 저희 가족과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예배와 모임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 성경공부 중인 나카오 형제, 이시카와 자매, 공 형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2. 구주 성탄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일상에서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영육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나눔란

2020년 11월 22일 주일에배 설교말씀 <찾아오시는 하나님> 창세기 16:7-16

아브람이 하나님이 아닌 아내의 말을 따른 결과 광야로 도망해 방황하게 된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16:7).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 죄로 인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 하갈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부르실 때 “사래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시며(8) 제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시며 베드로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세상의 종으로 살 때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 유일한 길은 하갈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현실에서 갈급하고 목마를수록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시 42:1-2). 인생의 밤에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중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사 26:9).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렘 33:3).

2) 하갈의 현재 상태와 방향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습니다(8). 우리 인생의 방향과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 물으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 하갈이 예배자인 아브라함을 만난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교만하여 내쫓긴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9)는 말씀은 하갈에게는 쉽지 않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도 괜찮은 곳 이 아닌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다 체념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요일 5:4). 예배가 있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려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3)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이며 단지 먼지일 뿐임을 아시기 때문에(시 103:14) 찾아오셔서 약속을 통해(10-12) 소망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갈은 자기를 찾아오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14).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훑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사 49:15).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요 14:18).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또 순간순간 찾아와 주셔서 작은 믿음에도 다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갈보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7: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